LS증권

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

주간 ESG 뉴스 2025.07.04~2025.07.11

구분	시장 동향
Energy	● **미 감세안, 풍력·태양광 세액공제 조기 폐지** (2025.07.07, 로이터) 풍력·태양광 세액공제 조기 폐지 조항 담긴 OBBBA 법안 최종 통과. 신재생에너지의 고비용, 해외 공급망 의존도 등 지적하며 전통 에너지와 정책 균형 맞추려는 의도. 이에 '26년 이후 착공 및 '27년 말까지 미완료 프로젝트는 세제 혜택 제한
	● **중국, 해상풍력 재도약으로 글로벌 주도권 강화** (2025.07.09, 블룸버그) 중국은 '21년 보조금 종료 이후 침체된 해상풍력을 회복시키며 현재 28GW 규모 설비 건설 중. 군사 지역 정보 비공개 등 인허가 제한에도 불구, 비용 효율성 및 대형 터빈 기술 발전에 힘입어 올해 글로벌 해상풍력 설치량의 72% 차지할 전망
Government	● **트럼프 행정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2025.07.04, 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는 EV 구매자에게 제공되던 최대 $75M 세액공제 폐지. 이에 '30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48%→약32%로 하락할 전망. 해당 정책은 글로벌 기후변화 및 탄소경쟁력 측면에서 후퇴하는 모습.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는 배터리 가격 하락 및 중국산 저가 모델 확대에 전기차 판매 지속적으로 증가
	● **EU, 생물다양성 보호 위한 '네이처 크레딧' 제도 도입 추진** (2025.07.07, 로이터) EU는 생태계 보호 활동에 대해 농민·임업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네이처 크레딧' 제도 도입. 연간 370억 유로 규모의 생물다양성 보호 재정 부족분을 보완할 계획. 생태계 회복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목적
Corporations	● **마이크로소프트, 덴마크 폐기물 발전소 통해 300만톤 탄소 크레딧 구매** (2025.07.09, ESG Today) 마이크로소프트는 덴마크 폐기물 에너지화 기업과 인프라 투자사 CIP와 협력해 '29년부터 약 300만톤 규모 탄소 제거 크레딧 구매 계약 체결.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 폐기물 발전소에 탄소 포집 시설 설치해 연간 약 50만톤의 CO_2 포집할 예정
	● **EDF, 영국 원자력 프로젝트에 $1.5B 투자** (2025.07.09, 로이터)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EDF가 영국 Sizewell C 원자력 프로젝트에 $1.5B를 투자. 금번 투자는 영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목적으로 유치. Sizewell C 원자력 발전소 완공 시 영국 내 약 6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전망
Funds	● **일본 GPIF, ESG 투자 비중 확대** (2025.07.04, 블룸버그) 일본 연기금 GPIF가 세계적인 ESG 투자 축소 흐름과 별개로 ESG 투자 비중을 확대. '25년 1분기 기준 ESG 투자 비중은 ¥18.2T로 전체 주식 중 14.7%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 미국 등지에서 ESG 펀드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현 상황에도, 연기금 측은 여전히 ESG 투자를 강화하며 장기적 성과를 추구한다는 입장
	● **영국 주요 연기금, 기후 전환 계획 템플릿 직면 가능성** (2025.07.07, IPE) 영국 연금규제기관(TPR)이 주요 연기금 대상 자발적 기후 전환 템플릿을 개발 및 테스트할 계획. 해당 템플릿은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투자 거버넌스 개선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파리협정 1.5도 목표와도 연계. 전환 계획은 향후 법제화 가능성이 있으며, '25년 중 노동연금부(DWP)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
	● **영국 LGPS, 위탁 운용사 대상 책임투자 기준 강화** (2025.07.09, Netzeroinvestor) 영국 LGPS가 위탁 운용사들에게 책임투자 기준을 더욱 강하게 요구. 최근 정치적 변화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반발과 내부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연기금 측은 책임투자의 재무적 이익을 강조할 계획. 한편, 업계 전반에서는 장기 시스템적 관점에서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는 '시스템 스튜어드십'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중

자료: 언론보도, LS 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투자전략팀).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